

한화 김승연 회장 4월15일 항소심 공판

서울고법 형사7부(윤성원 부장판사)는 횡령·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김승연(61)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4월15일 오후 3시에 열겠다고 3월11일 발표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3/11>